

경기도 마석의 축령산 자락에는 목수 김씨(김진송, 44)가 산다. 야트막한 산굽이를 하나 돌면 수동계곡이다. 벌거벗은 채 자맥질하는 아이들과 고기 굽는 어른들의 외글거리는 소리가 지척이다. 산으로 병풍을 두른 탓인지 속세의 잡음은 푹 끊겼다. 그가 손수 지었다는 붉은 색 벽돌 건물에 들어서자 나무냄새가 훅 끼쳐

“이것은 작품이 아니라 물건이다”

— 목수 김씨 —



글_ 박천홍_ 자유기고가

김씨는 자신이 만든 것을 ‘작품’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부른다. 작품과 물건, 예술가와 목수, 미술과 비미술을 나누는 것은 결국 예술을 신비화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예술과 일상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온다. 몸을 비비며 널려 있는 목재더미 사이로 도끼, 톱, 깎귀 따위 연장들이 날을 세우고 있다.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목각인형들이 뭔가 재미난 일을 하다 들킨 듯한 표정으로 ‘동작 그만’ 하듯 멈춰 서 있다.

김씨를 처음 만난 사람라면 그가 목수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지적인 외모 탓이다. 목수의 생김새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 테지만, 그에게는 ‘떡물’ 티가 역력하다. 말투도 그렇다. 논리적 사변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언어를 구사한다. 하지만 그의 손을 보노라면 그는 영락없이 목수다. 뭉툭한 손마디와 옹이 진 손바닥이 목수의 연륜을 짐작케 한다.

‘날것 그대로’의 근대 일상 탐구

김씨가 살아온 이력은 좀 남다르다.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는 근·현대 미술사를 전공했다. 이후 미술관에서 미술평론가, 전시기획가로 이름을 날렸다. 미술잡지 《가나아트》 창간에도 관여했고, 1990년대 초반에는 출판사 ‘현실문화연구’를 만들기도 했다.

목수 김씨가 아닌 미술사 연구자 김진송을 기억하는 이가 있다면, 《현대성의 형성—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라는 책 때문일 것이다. 1999년에 초판이 나온 이 책은 제목도 제목이려니와 우리 근대(현대)에 대해 전혀 다른 상을 그려주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시답지 않게 보이거나 시시껄렁한 것으로 취급되던 글, 그림, 사진, 만화, 광고 따위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날것’으로서 근대의 일상을 추체험하게 해주었다.

“기존의 미술사나 역사학은 사건이나 인물 중심이었어요. 저는 구체적인 일상의 체험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 삶의 연원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소수 지식인이나 권력자들보다는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쓰임새보다 ‘목리’가 우선

이 책을 쓸 당시 그는 목수였다. 그는 한때 여섯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자칫하면 ‘문화관 투쟁’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몰려왔다. 별 볼일 없는 먹물들이 먹고 사는 그런 방법은 그의 체질에 맞지 않았다. 1995년 무렵 전시기획 일을 맡아 하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집에 틀어박혔다. 심심풀이 삼아 책상이나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두세 달 정도 하니 꽤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다.

우연히 지인(知人)이 찾아왔다가 그가 만든 것을 보고 전시회를 열어 판매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1998년 <목수김씨전>이 열린 내력이 이랬다. 도끼와 톱, 끌을 손에 잡은 지 7개월 만이었다.

전시회 팸플릿에 그는 이름 대신 '목수 김씨' 라고만 밝혔다. 목물(木物)은 쓰임새가 중요하지 이름 때문에 팔리는 것이 마뜩잖아서다. 그만의 원칙도 세워두었다. 미술관 인사를 초청하지 않을 것, 지인에게는 절대 팔지 않을 것. 뜻밖에 반응이 좋았다. 전시품의 반이 팔려나갔다. 1년 정도 먹고 살 밀친이 마련되었다. 목수 김씨는 이렇게 탄생했다.

김씨는 자신이 만든 것을 '작품' 이 아니라 '물건' 이라고 부른다. 작품과 물건, 예술가와 목수, 미술과 비미술을 나누는 가치평가 기준이 작위적이며, 그것은 결국 예술을 신비화해 팔아먹으려는 속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예술과 일상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논리가 오히려 예술을 왜소화시키는 주범이다. 그가 굳이 이름을 고집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김씨의 작업스타일은 남다르다. 그가 쓰는 재목들은 산이나 들에 버려지는 나무들이다. 그것들이 아까워 주워온다. 때로는 허물어진 집에 달려가 주인을 졸라 얻어오거나 싼값으로 사오기도 한다.

한번 만든 목물은 1년 정도 써본 후 해체해 다시 손질한다. 그만큼 자기 일에 철저하다. 누구에게 목수일을 배운 적도 없다. 스스로 '목리(木理)를 깨우쳐간다. 그가 나무를 만질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나무의 속성이다.

“재료의 성질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쓰임새를 정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먼저 쓰임새나 형태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구하는 식이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 한계를 짓고 일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 전통양식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재료의 물리적 이치에 맞게 적응하다 보니 투박한 미가 나오는 거죠. 선행적인 미의식이 작용해서 소박미 따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비법' 이란 이름의 알팍한 권력

이처럼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어찌 목수일뿐이라. 예컨대, '예술혼' 이니 '장인정신' 이니 하는 것들도 그가 보기에는 이데올로기적 허울일 뿐이다. 어떤 분야에서 오랜 숙련과 경험으로 터득한 기술은 '비법' 이란 이름으로 포장된다. 비법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숨긴 채 신비화시킨다. 추종자들에게 조금씩 정보를 흘리면서 자신의 알팍한 권력을 누리려 한다.

헌데 비법이란 게 따지고 보면 별 것 아닌 경우가 태반이다. 너무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춘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비법을 공개하더라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자기만의 그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전문가 자격이 없다.

김씨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지극히 상식적인 논변이다. 아마 나무를 자르고, 깎고, 맞추고, 다듬고, 문지르고, 칠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깨우



▲ 목수 김씨와 '물건'

친 것들이리라. 비상식이 상식으로 둔갑해버린 세태가 그의 생각을 급진적으로 비치게 한다.

그가 목수 일을 하면서 틈틈이 겪고 생각한 것들을 적어 놓은 것들이 <목수일기>란 책으로 다듬어졌다. 나무 다루는 목수가 나무를 베어 만든 종이에 '나무생각' 을 담은 일만큼 제격인 일이 또 있을까.

김씨는 요즘 나무 인형을 깎고 있다. 지금까지 네 번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많았다. 아이들을 위한 전시회를 열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까지 150여 점 정도 만들었는데, 내년엔 200여 점을 모아 전시회를 열 생각이다.

인형에는 저마다 사연이 있다. 인형을 깎으면서 틈틈이 그 이야기를 글로 쓰고 있다. 이것이 모이면 책으로도 펴낼 예정이란다. 목수 김씨가 풀어놓을 이야기 보따리가 궁금해진다. **KOVN**

